

지역 주택업계 하반기도 '먹구름'

미분양 쌓이는데 수도권 위주 대책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방 시장에는 '毐'

하반기 광주·전남 주택건설업계의 기상도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사상 최악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는데다, 정부의 주택대출 육회기와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극심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끊기고 악성 미분양은 늘고 = 국토해양부와 광주시가 과학한 5월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8천565가구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지난 1월 1만 2천997가구에서 무려 34.1%(4천432가구)가 줄어들었다고 최근 발표했

지만, '수치 놀음'일 뿐이다. 여기에는 건설경기 악화로 분양 승인이 취소된 아파트 2천343가구와 주택공사 미분양 물량 1천339가구가 빠져있다. 사실은 상반기 내내 750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팔려 광주시의 전체 분양 물량은 여전히 1만2천247가구에 이른다. 오히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천434가구로, 전달보다 196가구나 늘었다.

전남의 5월 미분양 아파트는 6천 178가구로, 전달보다 335가구가 증가

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같은 미분양 해소 대책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르고 일부 지역 거래 가격이 수억원이나 뛰는 등 또 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반기, 뚜렷한 호재 없어=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시장도 상반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다,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실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건설업체들은 신규 분양 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마케팅 강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대출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주택 시장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 위원은 "금융 위기 이후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구매력을 갖춘 주택 수요 계층이 축소된 만큼 가계 대출 등의 규제가 제기될 경우 주택분양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제철 'CEO와 열린 대화'

행사를 했다. 정준영 포스코 회장(왼쪽 세 번째)이 이날 "세계 최고 초우량 기업으로의 원대한 꿈을 꾸 이뤄내자"고 격려사를 한 뒤 노래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 제공)

지역상인들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시민단체와 함께 네트워크 결성 생존권 사수

지역상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생존권과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섰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경기·집행위원장 김용재')는 최근 "지역 소상인들이 생존권과 자생적 인 지역경济 순환을 위해 지역시민 단체와 상인들이 힘을 합쳐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다"고 밝혔다.

광주네트워크는 앞으로 ▲대기업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합리적 규제법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도·군·폐업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하는 등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마련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

를 추진하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몸집을 줄여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지역의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 활동도 펼쳐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북구 임동 상인들 '상가번영회' 창립

광주시 북구 임동 상인들이 '임동상가 번영회(회장·임영길)'를 결성하고 7일 오후 7시 30분 임동주민센터에서 창립식을 갖는다.

450여 상인들이 참여하는 임동상가번영회는 신인회 전회번호부 발간, 상가 간판 정비, 육상녹화, 꽃화분 내놓기 등 특색 있는 상가 가꾸기를 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상의, 올 하반기 산업 기상도 반도체·조선 '맑음' 자동차·기계 '흐림'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용은 '주요 업종의 200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는 올해 하반기 174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업종은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두자릿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은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건설과 자동차 등 수요산업에서 생산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에 생산(-7.3%)과 내수(-15.3%), 수출(-6.0%) 등 전 부문에서 작년과 비교할 때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업종은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두자릿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은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건설과 자동차 등 수요산업에서 생산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에 생산(-7.3%)과 내수(-15.3%), 수출(-6.0%) 등 전 부문에서 작년과 비교할 때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 업종에서는 하반기에도 내수와 수출, 생산 등 전 부문에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상의는 내다봤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만료됐고 유가도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내수시장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1만8천대(-3.3%) 가량 판매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선진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데다 신흥시장 수요가 줄면서 작년 동기대비 약 27만대(-21.4%) 감소한 98만대를 수출하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업종은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두자릿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은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건설과 자동차 등 수요산업에서 생산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에 생산(-7.3%)과 내수(-15.3%), 수출(-6.0%) 등 전 부문에서 작년과 비교할 때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디소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4대강 유역 사업 등 대형 토목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업황을 호전시킨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63년 무분규 금호고속 노동부 상생기업 인증

63년째 무분규 사업장의 역사를 쌓고 있는 금호고속(사장 김성선)이 최근 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노사가 지난달 24일 '2009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하고 노사상생협력 선언을 이끌어낸 데 따른 것이다.

노측은 올해 임금협약을 회사에 위해 임금동결을 이끌어냈으며, 사측은 고통분담을 출선수수법에 실천한다는 취지로 임원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는 노사

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동부로부터 이를 인정받는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선 노사가 합의해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노조는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하거나 무교섭 일·단협 위임,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이외에도 신용평가 가점 부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 우대지원도 받게 된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상업저축은행, 광주·전남 영업력 강화

여수에 본사를 둔 상업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금융그룹과의 통합을 선언하고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지난 3일 여수시 교동 상업저축은행 본사에서 통합 기념식을 열고 상업저축은행을 광주·전남의 종합금융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상업저축은행은 증권과 자산운용사, 캐피탈사 등을 계열사로 가진 골든브릿지금융그룹과의 통합으로 여-

수신 등 기존 업무외에 방카수랑스, 펀드판매 등 복합상품 취급은 물론 PF(프로젝트 바이낸싱) 업무를 하는 종합 금융회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은 "저축은행과 그룹내 금융투자사들과의 시너지 전략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 가겠다"며 "상업저축은행을 기반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만원권 다 어디갔나 했더니...

카지노·경마장 인기... 마트 등 시중선 구경 힘들어

5만원권 지폐가 일반 시중에서 는 거의 유통되지 않고 카지노와 경마장 등 사행업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 발행 첫날인 지난달 23일 이후 지금까지 한은이 금융권에 공급한 지폐는 모두 5천490만장이며 금액으로는 2조7천454억원이다.

올해 인구가 4천875만명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1장 이상이 시중 금융권에 공급된 셈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5만원권을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A사의 한 지점은 현금 결제액 9천만 원 가문데 250만원권이 200장이나

원 가운데 2.8% 가량인 250만원 정도만이 5만원권으로 결제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내에 있는 신현은행 사북지점은 지금까지 50억원에 이르는 5만원권을 고객들에게 공급했는데, 이는 본점 영업부의 공급액 9억원의 6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협 마사회지점에도 지난주 창구에 들어온 지폐 50억원 가운데 5만원권이 2억원에 이르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도박, 뇌물수수 등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5만원권이 많이 사용될 것"이라 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빌려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점포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공장/토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갑경기 초대자 비고

인천광역시 대174,간424 14억6천 5층모듈

인천광역시 대162,간307 12억2천 6억5천 6층모듈

인천광역시 대149,간326 31억5천 3억6천 7층빌딩

인천광역시 대149,간236 7억6천 3억6천 7층빌딩

인천광역시 대167,간268 28억5천 16억5천 7층빌딩

인천광역시 대190,간180 60억9천 30억 7층빌딩